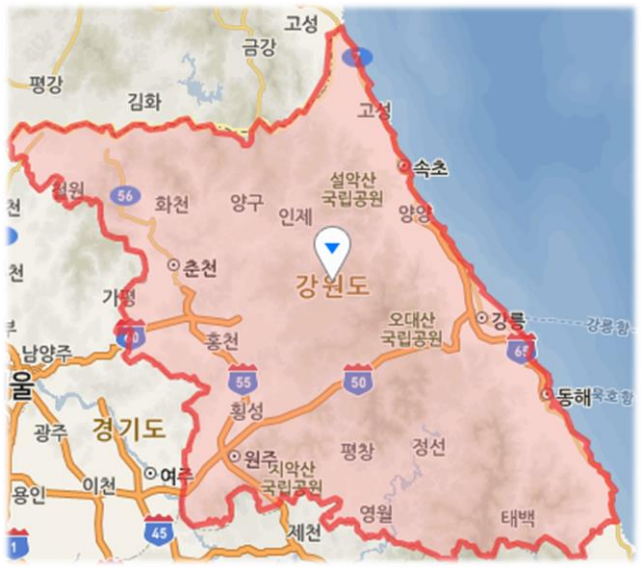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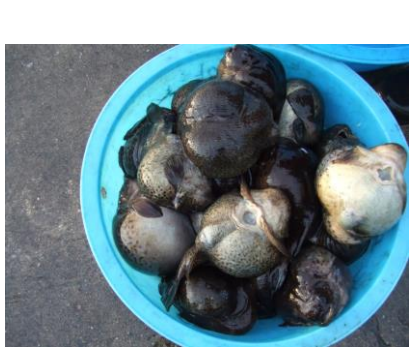


강원도의 맛





walk & work
문워크
평창올림픽 홍보대사 위촉

KTV

평소 시크한 김영아도
웃음 터지고...



walk & work
문워크
평창올림픽 홍보대사 위촉

KTV

먼저 드시지 마시지요



walk & work
문워크
평창올림픽 홍보대사 위촉

KTV

강원도 대표 음식
감자전과 메밀 전병 나눔 행사 참석



walk & work
문워크
평창올림픽 홍보대사 위촉

KTV













동해여! 오늘 밤은 이러케 무더워 나는 맥고모자를 쓰고
삐루를 마시고 거리를 거닙네.(중략) 이러케 맥고모자를
쓰고 삐루를 마시고 날미역 내음새를 맡으면 동해여 나
는 그대의 조개가 되고 싶읍네. 어려서는 꽃조개가 자라
서는 명주조개가 늙어서는 강에지조개가. 기운이 나면
헤를 빼어물고 물속 십리를 단숨에 날고 싶읍네. 달이 밝
은 밤엔 해정한 모래장변에서 달바래기를 하고 싶읍네.
긱은비 부실거리는 저녁엔 물 우에 떠서 애원성이나 불
르고 그리고 햇살이 간지럽게 따뜻한 아침엔 인함박 같
은 물바닥을 오르락나리락하고 놀고 싶읍네. 그리고 그
리고 내가 정말 조개가 되고 싶은 것은 잔잔한 물밑 보드
러운 세모래 속에 누워서 나를 쏘시려 오는 어여쁜 처녀
들의 발뒤꿈치나 쓰다듬고 손길이나 붙잡고 놀고 싶은
탓입네. (1938. 6. 7. 동아일보)